

# 엔돌의 신접한 여인과 예언자 홀다: 여성 종교의례의 사회문화적 함의\*

이은애(이화여대)

## 1. 들어가는 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은 물론, 전쟁과 자연재해, 각종 사건 사고 등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이전의 제도화된 규범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공하는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sup>1</sup> 기독교 안에서도 한편으로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한 성서적 예언(요엘 2:28 이하, 계 22:6 이하)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거짓 예언과 잘못된 해석, 신비체험에 근거한 많은 이단과 사이비 단체가 존재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기독교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sup>2</sup> 거짓 예언과 참 예언, 이단과 정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3S1A5B5A17086746)

1 이양호, 「철학. 윤리. 종교 강의」 (서울: 이문출판사, 2000), 230.

2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발표한 '제5차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2023.3.3.)에 의하면

통의 관계는 구별과 분리, 금지와 배제, 그리고 통합과 합법화의 과정을 겪는 논쟁의 역사를 오래 전부터 계속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예언 현상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해 가나안, 아람, 이스라엘과 유다 등 고대 근동 전역에 널리 알려진 현상이었고<sup>3</sup>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인 구약성서에서 토라와 더불어 예언서라는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신비주의적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 즉 신접한 자와 박수, 점쟁이와 길흉을 말하는 자, 무당, 진언자, 초혼자 등은 이방 종교의례로 금지되었다(레 19:31; 신 18:9-11; 왕하 21:6; 23:24 등)는 사실은 다양한 이방의 종교행위들이 왕국시대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행해졌음을 보여준다.<sup>4</sup> 반면,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은 미래의 일에 대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 안에서 신의 뜻을 전달하여 국가와 사회와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sup>5</sup> 그들은 국가와 사회, 종교가 위기를 맞고 역사의 전환점에 이르렀을 때마다 등장하여 신의 뜻을 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비판하고 경고하지만 예언자들 자신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권력을 가진 중심부에 속해있지 않은, 오히려 주변부

---

현재 개신교인 중 1/10이 소위 이단에 속하는 교회에 출석한다고 대답했고 숫자로는 6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9983&code=231111111&cp=nv>.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서는 현대 한국 사이버 교주들의 실체를 폭로하여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3 조셉 블레킨썩, 「이스라엘 예언사」 (황승일 옮김),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2), 73 이하. 원제는 Joseph Blenkinsopp, *A History of Prophecy in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3, 1996)

4 이러한 신비주의적 종교행위나 특별한 영적 능력은 — 주로 그 중개 역할인 영매는 여성이었는데 — 신약시대와 기독교의 역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왔지만 교회의 강력한 권위적 위계질서를 형성해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점차 주변화되고 소외되고 결국 사라져갔다. Elisabeth Gössmann u.a. (hrsg.), *Wörterbuch der Feministischen Theologie*, 2.Auflag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2), 461-463.

5 마빈 A. 스위니, 홍국평 옮김, 「예언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30-31. 원제는 Marvin A. Sweeney, *The Prophe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에 속하는 참된 지도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구약 시대에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점술과 예언, 이방종교와 야웨종교, 비합법성과 합법성이 혼재하며 충돌하고 분리하며 통합되기도 하는 과정을 겪었다. 종교의 사회적 기능 중 하나가 현실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통합하고 이전의 파괴된 질서를 재통일하여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sup>6</sup> 구약성서의 야웨종교 또한 이전의 이교 도적 종교 현상들과 행위들을 부정하고 금지하고 분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야웨종교 안에서 수정하면서 새롭게 통합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여예언자들의 예언 활동의 내용과 범위는 이스라엘 사회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이 있으며 또한 야웨 종교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2. 구약성서의 여예언자들

구약성서 안에서도 나라와 왕의 운명에 관해 예언한 무녀 혹은 여예언자를 찾을 수 있다. 구약성서에서 예언자라고 불린 여성은 미리암, 드보라, 홀다, 그리고 이사야의 아내(사 8:3)와 노아다(느 6:14) 밖에 없다. 그나마 이사야의 아내는 이름도 없고 활동에 대한 정보도 없으며 여예언자 노아다는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여 그를 두렵게 한 예언자들 중 하나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에스겔 13:17 이하에 ‘예언하는 여자들’<sup>7</sup>은 부정적인 언급이기 하지만 바빌론 포로기 시기에도 활동했던

6 이양호, 윗글, 239.

7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겔 13:17)

여예언자들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여예언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금지되고 경고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구약성서 안에서 왕의 운명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여성 영매 (medium)인 엔들의 ‘신접한 여인’<sup>8</sup>(삼상 28:3-25)에 대한 해석은 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행해졌다. 이 신접한 여인은 사기꾼으로서 실제로는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지 못했고 거짓으로 예언을 하여 초혼술을 금지한 사울에게 복수한다거나<sup>9</sup> 역대기 사가의 관점(대상 10:13)에 따라 사울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잘못과 범죄로 보는 부정적인 면에서 다루어졌다.<sup>10</sup> 반면 여성신학적 관점에서는 이 신접한 여인의 신비한 능력을 인정하고 절망한 사울을 위로하고 돌보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sup>11</sup> 이 본문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지금까지도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엔들의 신접한 여인의 신비적 활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대조적으로 남 유다 왕국의 여예언자 홀다는 국가와 왕의 운명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언자로 그 이름과 활동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남 유다 왕국 요시아 왕 때의 여예언자 홀다(왕하 22: 대하 34:22-28)는 성전에서 발견된 문서에 대하여 야웨께 묻고 야웨의 뜻을 왕에게 전함으로써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엔들의 신접한 자에

8 ‘신접한 여인’은 히브리어로는 ‘에셰트 바알라트 옴(אִשֶּׁת בַּעֲלַת אֹב)인데 개역성경번역에서는 ‘무당’, 개역개정에서는 ‘신접한 여인’, 새번역에서는 ‘여자 무당’, 공동번역에서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인’으로 각각 번역하였다.

9 E. C. 러스트, 「사사기, 룯기, 사무엘 상.하」 (박봉배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177-178. 원제는 Eric Charles Rust, *Judges, Ruth, Samuel 1&2* (London: SCM Press, 1962).

10 강성열, “고대 이스라엘의 신비주의와 이단” 「신학논단」 제73집(2013), 20.

11 이경숙, “사울이 방문했던 엔도르의 무당 - 삼상 28:3-25”, in: 이경숙, 「구약성서의 여성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21-135.

비하면 예언자 홀다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되고 연구되었다.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미리암, 드보라와 함께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로,<sup>12</sup> 요시아 종교개혁의 동반자로서 이스라엘이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 참된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sup>13</sup> 또한 족제비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홀다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제의예언자로 보고 카프카의 소설 '회당의 동물'과 비교문학적으로 읽기도 하였으며<sup>14</sup> 고대 근동의 제왕 예언자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와 왕의 운명에 대해 예언하는 제왕 예언자로 평가하기도 한다.<sup>15</sup> 엄태항은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타난 홀다 본문을 비교 분석하여 역대기에서는 나라의 운명 보다는 왕의 개인적 운명에 더 초점을 맞추고 홀다의 예언과 요시아 죽음 사이의 성취를 변증하기 위해 요시아의 죽음 장면을 재구성함으로써 홀다의 역할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긍정하고 율법의 발견과 요시아 죽음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돕는 역할로 재해석되었다고 보았다.<sup>16</sup>

하모리(Esther J. Hamori)는 엔들의 신접한 여인과 예언자 홀다를 내러티브 방법론으로 비교하면서 두 경우 모두 한 여성이 왕을 위한 포괄적 의미의 점술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으며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는 그 행위에 대한 가치평가 없이 서술하고 있지만 역대기 사가에 이르러서 점술은 나쁜 것으로 예언은 옳은 것으로 평가

12 하미자, “구약에 나타난 여성 지도자 연구: 미리암, 드보라, 홀다에 관한 여성신학적 고찰”, 『한국여성신학』 64(2004), 60-68.

13 이경숙, “요시아 종교개혁의 동반자, 여예언자 홀다”, in: 이경숙, 『구약성서의 여성들』, 190-202.

14 서명수, “예언자 ‘홀다’와 카프카의 ‘회당의 동물’”, 『문학과 종교』 제14권 1호 (2009), 117-136.

15 윤동녕, “제왕신탁가로서의 홀다의 역할과 기능”, 『구약논단』 제28권 3호(2022), 186-216.

16 엄태항, “역대기에서 홀다의 예언: 대하 34:22-28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23권 3호 (2017), 75-109.

했다고 주장한다.<sup>17</sup> 이번 연구에서는 구약성서에서 국가와 왕의 운명에 관련해서 신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두 여자, 즉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초혼의식과 요시아 시대 예루살렘의 여예언자 홀다의 예언행위를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라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 안에서 종교사적, 문화사적으로 비교하고 해석한다는데 그 차별성과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이교적이지만 보편적이었던 대중의 종교를 점차 축소시양하고 분리하면서 점차 성전과 율법서로 대변되는 정통 종교로서의 야웨 종교의 권위와 위계를 세워가는 과정을 여성 무녀/예언자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게 될 것이다. 즉, 권력의 중앙화 이전에 토착적 대중적 종교행위에서는 여성이 종교의례 전체를 주관하는 여사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점차 정치적, 종교적 중앙화 과정에서 예언이 독립적인 부분으로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주변부로 밀려나는 종교적 형태 혹은 신앙 행위가 금지되고 분리되면서도 부분적으로 교정되어 권력을 가진 중심부 종교 안에 결합되고 변화하며 대통합되어 새롭게 종교적 원형을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3. 여성 종교 의례와 사회 문화적 변화의 상관성

야웨 종교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공식적 종교로 주장되었지만 그 이전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여전히 토착적, 이교적 종교관습과 행위가 대중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페르

17 Esther J. Hamori, "The Prophet and the Necromancer: Women's Divination for Kings", JBL 132, no 4 (2013), 827-843.

시아 시대 이전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다양한 제의’와 폭넓은 신앙과 관습이 존재하며 행해졌다는 것이다.<sup>18</sup> 성서의 기록자들은 야웨 신앙의 유일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신앙의 종교적 현실은 상당히 다신교적이었으며 이스라엘 평민들은 점술을 비롯한, 주변 세계의 많은 종교적 풍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sup>19</sup> 국가와 왕의 운명에 대해 예언한 두 여성, 즉 엔돌의 신접한 여인과 예언자 홀다에 대한 본문은 왕국의 형성과 쇠락이라는 역사적 시대상황 속에서 이질적 문화와 종교의 종교 행위들이 갈등하며 분리되는 과정을 잘 드러낸다. 왕국과 왕의 운명에 관련된 ‘신접한 여인’과 ‘여예언자’라는 명칭과 그들이 행한 종교 의례의 특성이 가진 사회 문화적 함의는 고대 이스라엘 안에서 왕권의 정치적 권력 중앙화와 왕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식 종교로서의 야웨 종교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인간은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개별적인 사회 문화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고 인간의 종교 의례 또한 시대와 사회의 특성과 변화에 따라 변화해왔다고 할 수 있다. 구약성서에서 여성을 통한 종교행위, 즉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초혼술이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해석하는 예언 또한 하나의 종교적 의례로서 그것이 행해진 정치적, 종교적 상황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문화 인류학자 빅터 터너(Victor Turner)의 의례이론에서 그는 의례와 의례의 변화를 사회 문화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터너는 1950년대 아프리카 소수부족의 종교의례에 대한 현장조사 연구를 통해 종교의례는 실제의 사회

18 노만 K. 갓월드,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정치」 (윤성덕 옮김), (서울: CLC, 2018), 313-314. 원제는 Norman K. Gottwald, *The Politics of Ancient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19 강승일,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점술」 (서울: CLC, 2015), 285-286.

적인 삶의 과정을 토대로 하는 문화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sup>20</sup> 그는 의례가 의례의 구성요소인 상징과 의례의 콘텍스트인 사회적 갈등으로 이루어졌고 의례는 머물러있는 체계로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이해한다.<sup>21</sup> 터너는 의례와 사회 상황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극’(social drama)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개념은 갈등상황에서 생겨나는 비조화 혹은 부조화의 한 단위로서 공적인 행위의 네 단계를 포함한다. 즉 위반(breach), 위기(crisis), 교정(redressive action), 대통합(re-integration) 또는 분리(separation)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sup>22</sup>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초혼의례, 그리고 예루살렘의 홀다의 예언의례 또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회 안에서 종교 형태의 변화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왕국 형성과 왕정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종교적 중앙집권화를 시도하는 사회 변화와 당시의 토착적 혹은 이방적 종교 의례로서 여성 점술 행위와 초혼술의 사용, 그리고 왕정 말기 정치적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율법서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여성 예언의 독립과 분리 과정을 고대 이스라엘의 다면적인 사회 문화적 콘텍스트(context) 안에서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20 V. Turner, *From Ritual to Theatre-The Human Seriousness of Play* (New York: PAG publications, 1982), 64.

21 V. Turner, *The Drums of Affliction, A Study of religious process among the Ndembu of Zambia* (Oxford: Clarendon press, 1968), 269. 안선희, “빅터 터너(Victor Turner)의 의례이론의 예배 연구에의 적용: 사회극 이론과 예배 갱신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32집(2004), 255에서 재인용. (253-274)

22 V. Turner, *From Ritual to Theatre-The Human Seriousness of Play*, 68-69. 빅터 터너, 「인간 사회와 상징 행위: 사회적 드라마, 구조, 커뮤니티스」(강대훈 옮김), (서울: 황소길음, 2018), 46-52. 원제는 Victor Turner, *Drama, Fields and Metaphors: Symbolic Action in Human Societ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 4. 엔들의 ‘신접한 여인’(삼상 28:3-25): 과도기적 왕국과 주변화된 종교 의례

사사시대로부터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마지막 사사이며 예언자였던(삼상 3:20; 대하 35:18) 사무엘이 죽고난 후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하여 야웨의 지시를 구했지만 실패했다. ‘야웨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삼상 28:3)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고대의 모든 방법을 사용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그러자 사울은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에셋트 바알라트 옴, אִשְׁתֵּי בַּאֲלֵי־לַחַם נְשִׁים)을 찾을 것을 명령하고 신하들은 엔들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알린다.<sup>23</sup> 사울은 변장하고 그 여인에게 가서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삼상 28:8)고 요청하고 그 신접한 여인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려 한다.<sup>24</sup> 사무엘은 이전에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리라고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할 것이고 사울과 그 아들들은 블레셋 전투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삼상 28:19).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비판하고 조언했던 예언자였다. 하지만 그가 죽자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도 막힌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울의 죽음

23 여기서 옴(אִשְׁתֵּי)이란 단어는 땅이나 구덩이, 거기서 나온 혼령들이나 구덩이를 관리하는 사람을 뜻할 수 있고 초혼술사는 옴에게 묻는 사람(신 18:11)이나 그들에게 사로잡히는 사람(레 20:27)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삼상 28장 본문에서 초혼술사는 ‘조상의 혼령의 (혹은 그것을 다루는) 여자’이다. 랄프 W. 클레인, 「사무엘상」(김경열 옮김), (서울: 솔로몬, 2004), 457-8. 원저는 Ralph W. Klein, *1 Samuel* (Waco, Word Books, 1983).

24 8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코셈(קוֹסֵם)은 귀신에 의한 점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곳에서는 이방 점술사들의 행위나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것으로 신명 기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다(신 18:10). P. Kyle McCarter, Jr., *1 Samuel*,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0), 421.

과 장사에 대한 보도에 이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삼상 28:3).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서 널리 행해지던 주술, 점술, 마술 등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폭넓게 행해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sup>25</sup> 특히 오보트(תובט, mediums)는 레위기 성결법전에서도 금지된 것(레 19:31; 20:6)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혼백을 불러내는 자, 혼백에게 묻는 자를 의미한다.<sup>26</sup> 그러나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사울의 요구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신하들의 대화(삼상 28:7)는 다음 두가지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당시에 이 이름없는 여자가 ‘옴(ֹוּם)’, 즉 ‘영매’(medium)로 널리 알려진 여인이었음을 나타내며 죽은 자를 불러내는 기술인 초혼술이 남자보다는 여자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sup>27</sup> 사울 시대에 이러한 여자들의 초혼술과 마술이 행해지고 있었지만 이것들이 금지된 것은 왕국시대 중앙집권화를 위한 국가적, 제의적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sup>28</sup> 그러나 여전히 금지된 종교 의례를 행하는 여자들이 있었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사울 왕을 위하여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어 예언하도록 한 것이다. 사울이 원래 못하게 한 것을 여인은 행했고 사울은 보지 못하는 것을 여자는 보았던 것이다(삼상 28:13-14).

사무엘의 예언을 들은 사울은 두려움과 허기로 인해 땅에 쓰러졌고 신접한 여인은 사울의 고통을 보고 자신은 목숨을 내놓고 왕의 말을

25 강성열, “고대 이스라엘의 신비주의와 이단”, 19.

26 오보트는 옴(ֹוּם)의 복수형으로 삼상 28:3 이하와 연결해 일종의 강신술(necromancy)로 여겨진다. Phillip J. Budde, *Leviticus*, NCBC (Grand Rapids: Eardmans, 1996), 285. M. Noth, *Leviticus*, OTL (Göttingen: SCM Press, 1965), 143-144.

27 Ilse Müllner, “Die Samuelbücher”, in: Luise Schottroff & Marie Theres Wacker(Herg.), *Feministische Bibelauslegung*, 2. korrigierte Auflage, (Gütersloh: Chr. Kaiser Gütersloher Verlagshaus, 1998), 124.

28 L. Schottroff/S. Schroer/ M.-T. Wacker, *Feministische Exegese-Forschungserträge zur Bibel aus der Perspektive von Frauen* (Darmstadt: Primus Verlag, 1997), 111-112.

들어주었으니 이제 자신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으라고 말한다(28:21-22). 사울은 처음엔 거절하나 결국 그녀의 말대로 그녀가 만들어 준 송아지 고기와 무교병을 먹고 기운을 차려 그녀의 집을 떠난다. 불안한 왕 앞에 죽은 자를 불러낸 신접한 여인은 이제 권위를 가진 자로 왕에게 ‘내 말을 들으라’<sup>29</sup>고 말함으로써 사울왕과 같은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sup>30</sup>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권위있는 목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다.<sup>31</sup> 그녀는 ‘왕의 말을 들었다’고 표현함으로써 왕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그녀의 종교적 사역을 부탁했으며<sup>32</sup> 왕을 위한 종교 의례를 행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만든다.

비록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었고(삼상 28:3) 멸절시켰으며 점술하는 행위를 아마도 사형 형벌로 금지했지만(삼상 28:9) 엔돌이라는 지역에서는 사울의 신하들도 알만큼 유명한 신접한 자가 존재했고 실제로 왕의 허락 아래 초혼술이 행해진 것이다. 엔돌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며 사울이 머물렀던 길보아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이고 블레셋군의 진지보다 더 북쪽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sup>33</sup> 사울은 위협을 무릅쓰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으며 그 여인은 죽은 예언자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렸고 그는 사울 왕에게 침묵했던 야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다.<sup>34</sup> 그녀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29 성서 본문에는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라’(Now please listen to your servant, 삼상 28:22)고 말하지만 ‘여종’이라는 표현은 이제 곧 버림받게 될 왕 앞에서의 의전적 형식이고 오히려 이 요구는 바로 앞 절에서 ‘여종이 왕의 말을 들었으니’(삼상 28:21)과 평행을 이루는 것이다.

30 Ilse Müllner, “Die Samuelbücher”, 124.

31 Esther J. Hamori, 윗 글, 834-835.

32 Ilse Müllner, “Die Samuelbücher”, 124.

33 랄프 W. 클레인, 「사무엘상」, 459.

34 13절에서 신접한 여인은 ‘내가 영(엘로힘, אֱלֹהִים)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왕의 부탁을 받아 종교 의례를 행했으며 그 여자의 일은 성공적이었고 그 일로 인해 비난받지 않았다. 또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허기와 두려움으로 쓰러진 사울 왕과 신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송아지를 잡아 대접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자바흐, נָסַח)가 대체로 ‘희생제물을 도살한다’는 의미라는 것은 지역 변방의 금지된 종교적 하위 체계에서 신접한 여인이 준수제적 역할을 담당했고 사울과 그 신하들은 그 희생제의 식사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5</sup> 사울왕의 요청으로 시작된 이 종교 의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간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점차 주변화되어가는 토착적 종교의 여사제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처음 왕국을 형성한 사울 왕국에서는 권력의 중앙화, 세습화와 함께 야웨 종교의 중앙 집권화도 시도 되었지만 지방에서는 그리고 가정종교 형태 안에서 여전히 다양한 방법의 신을 만나는 방법들이 존재했고 신의 영역을 매개하는 영매(medium)들이 존재했으며 그 역할은 주로 여성들이 담당했을 것이다. 왕정을 지지하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사사시대는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대이다.<sup>36</sup> 그러나 이 시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카리스마적 종교지도자가 활동할 수 있는 지방분권적 사회가 전제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에게도 중

---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15절에서 사울이 ‘하나님(엘로힘, אֱלֹהִים)은 나를 떠나서...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와 대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조) P. Kyle McCarter, Jr., *1 Samuel*, 421.

35 캐롤 A. 뉴섬/샤론 H. 린지 엮음,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구약편」 (이화여성신학연구소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244-245. 원제는 C.A. Newsome and S. H. Ringe (eds.), *Women's Bible commentary* (L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엔슨(David H. Jensen)은 이 식사가 ‘하나님과 화해의 순간’을 제공한다는 그린(Green)의 해석에 동의한다. 사울은 이 식사를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다. David H. Jensen, *1 & 2 Samu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5), 161. Barbara Green, *King Saul's Asking*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3), 117 재인용.

36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17:6; 21:25)

교적 영역에서의 활동이 더 가능했을 것이다.<sup>37</sup> 결국 금지된 여성 사제의 종교 의례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삼상 31장)으로 끝나는 사울 왕국의 실패를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5. 예루살렘의 ‘홀다’(왕하 22:3-20): 왕국 멸망에 대한 공식 종교 예언자의 경고

홀다는 왕국시대에 이름이 알려진 유일한 여예언자이다. 열왕기하 22-23장의 시대적 배경은 북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남 유다의 왕들 히스기야, 므낫세<sup>38</sup>, 암몬은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침으로써 제한적 독립을 유지하고 종교적으로는 온갖 우상숭배를 행하고 있던 때이다. 겨우 여덟 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은 통치 18년에 쇠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대제사장 힐기야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다.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자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고 그 책의 말씀에 대해 아웨에게 묻기 위해 신하들을 보낸다. 그 이름이 일일이 나열된 주요 신하들은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사는 여예언자 홀다에게 가며 홀다는 아웨의 신탁을 전하는데 곧 그 율법책에 있는 대로 유다 땅과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예언한다(왕하 22:3-20). 홀다의 말을 전해들은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실행하는데, 즉 아웨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을 갱신하고 이방 제의를 유다 땅과 성전에서 제거하고 유월절 의식을 다시 거행한 것이다(왕하 23장).

요시야 종교개혁에서 여예언자 홀다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

37 캐롤 A. 뉴섬/샤론 H. 린지 엮음,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구약편」, 242.

38 특히 므낫세는 사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에게 물었다(왕하 21:6).

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녀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바미쉬네, בְּמִשְׁנֵה), 즉 확장된 신도시 구역에 살았으며<sup>39</sup> 왕의 예복을 담당하던 관리 살롬의 아내였다.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홀다의 집으로 그녀를 직접 찾아갔고 홀다는 예언자의 전형적인 사자전언양식<sup>40</sup>인 ‘코 아마르 아도나이(כֹּה־אָמַר יְהוָה)’(왕하 22:15-16)와 ‘네움 아도나이(נְעוּם יְהוָה)’(왕하 22:19)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홀다가 당시에 유명한 예언자였고 신명기 역사가도 이 사실과 그 이름에 대해 결코 침묵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홀다의 예언(왕하 22:16-20)은 야웨 한분만 섬기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나라가 멸망하고 땅을 빼앗기리라는 신명기적 역사신학을 요약한 것<sup>41</sup>이라는 점은 요시아 종교개혁에 있어서 홀다의 위치와 역할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왕궁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던 여예언자 홀다는 ‘중심부의 선지자’(central prophet)로 볼 수 있다.<sup>42</sup> 홀다는 국가와 사회 중심부에서 살면서 공적인 정치적, 종교적 활동과 역할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었고<sup>43</sup> 그래서 그녀는 왕과 그의 신하들의 자문

39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멸망한 북 이스라엘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며 심지어 레니타 워즈(Renita J. Weems)는 홀다가 북 이스라엘 난민 출신이라고 해석할 정도로 북 이스라엘 전통과 연결된 지역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윤식, “역대하 34-35장(요시아 본문)에 나타난 개혁과 포용적 언어”, 『구약논단』 제27권 4호 (2021.12), 56.

40 E. Zenger(u.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1995), 299.

41 Kyung-sook Lee, “Die Königsbücher”, 143. in: Luise Schottroff & Marie Theres Wacker(Herg.), *Feministische Bibelauslegung*.

42 R. R. Wilson, *Prophet and Society in Ancient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219-223; T. R. 흙스, 「열왕기하」(김병하 옮김), WBC 13 (서울: 솔로몬, 2008) 615. 원제는 T. R. Hobbs, *2Kings*, (waco: Word Books), 1985.

43 하모리는 홀다가 그날 당직 예언자였고 아마도 규칙적인 역할을 갖고 있었으리라 추정한다. Esther J. Hamori, 윗 글, 832.

에 그렇게 신속하게 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동시대 예언자 예레미야가 아나뚏이라는 레위 성읍 출신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사회에 대해 매우 신랄하게 공격했던 것과 이런 중요한 사건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예레미야가 유다 지역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해지던 하늘의 여왕에 대한 예배를 종교적 타락으로 비판하며 대대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질타하는 것(렘 6:16-20)은 당시 여신을 숭배하는(왕하 23:6) 가정 종교와 여성 중심의 사적인 제의<sup>44</sup>의 존재를 드러내며 야웨 종교의 중앙화로부터 주변화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공식 종교와 공식 제의 외에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소규모 가족 집단의 경건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종교혼합주의 경향과 다원주의적 현실이 존재했던 것이고<sup>45</sup>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러한 종교적 혼란을 타개하고 모든 제의를 예루살렘으로 집중하는 것을 포함했던 것이다(왕하 23:4-20).

이에 앞서서 홀다는 ‘예언 의례’를 집행했다. 왕이 보낸 자들 앞에서 예언자 홀다가 한 말은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야웨가 행하실, 유다에 닥칠 재앙에 대해 이야기한다.<sup>46</sup> 홀다의 신탁은 유다가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것과 그러나 요시야 왕은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집트 느고와의 전투에서 갑작스러운 요시야의 죽음(왕하 23:29)이 홀다의 왕에 대한 예언의 확실성에 의문을

44 하늘의 여왕은 아시리아의 여신 이스타르, 가나안 여신 아스타르트 혹은 다른 지방의 여신으로 추정된다. 이경숙 외 지음, 「여성이 읽는 성서 구약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67.

45 라이너 알베르츠, 「이스라엘 종교사 I」 (강성열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422-443. 원제는 Rainer Alberts,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46 Ernst Würthwein, *Die Bücher der Könige, 1.Kön.17-2. Kön.2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50.

던지게 하지만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홀다의 예언은 35년 뒤에 정확히 실현되었다(왕하 25장). 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도 적절한 장례의례를 거쳐 그의 가족묘에 묻힘으로써 스올에서 편안히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홀다의 예언은 적절하며 그로써 홀다는 참예언자임이 증명된 것이다.<sup>47</sup>

특히 홀다의 예언은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율법책이라는 기록 문서에 집중되어 있다. 대체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두루마리는 후에 신명기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보는데 이 책의 진정성을 안 것은 왕이지만(왕하 22:13) 그 안에 담긴 말씀을 역사 속에서 현실화한 것, 즉 책에 담긴 진리를 실행시킨 것은 바로 예언자 홀다인 것이다.<sup>48</sup> 본문을 통해 왕국시대 상류 지도층의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으며<sup>49</sup> 홀다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의 핵심이 될 첫 번째 문서를 해석하고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경전 형성에도 영향력을 끼친 주요 예언자로 볼 수 있다. 홀다의 예언은 예루살렘 안에서 문서를 근거로 이루어졌고 예언자의 전형적인 사자전언양식을 사용하여 예언함으로써 왕국 쇠퇴기에 공식적인 야웨 종교 안에 포함된 여성 예언자의 합법적 종교행위와 권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례가 사회의 지배 질서를 반영하거나 표현하지만 동시에 의례화 과정을 통해서 권력의 위계를 창출한다는 점을

47 후기 유대교에서도 홀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참예언자로 이해함으로써 그녀를 학파의 수장으로 만들고 성전 남쪽 문에 그녀의 이름을 붙이게 했다. D. Edelman, "Huldah the Prophet: of Yahweh or Asherah?", in: Athalya Brenner(ed.), *A Feminist Companion to Samuel and King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241-242.

48 캐롤 A. 뉴섬/샤론 H. 린지 엠크,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구약편」, 299.

49 이세벨의 경우 쓸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왕상 21:8) 고고학적 발굴물도 이를 입증한다. L. Schottroff/S. Schroer/ M.-T. Wacker, *Feministische Exegese-Forschungserträge zur Bibel aus der Perspektive von Frauen*, 63,102.

고려한다면<sup>50</sup> 가부장적이고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야웨 종교 안에서 여성 예언자 홀다의 공적인 기능과 역할은 특별하고 도전적이며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고 남 유다 왕국의 막바지 시기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정치적, 종교적 중앙화를 이루려는 마지막 시도였는데 여기에서 그 중심에 위치한 여예언자의 역할과 활약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인 야웨 종교의 중앙화와 권력 구조의 위계 가운데서도 그 중심부에 여예언자가 있었고<sup>51</sup> 그 예언자는 기록된 문서의 권위를 승인하는 예언적 종교의례를 행함으로써 나라와 왕의 운명에 대한 신의 뜻을 전달하여 왕과 백성과 국가의 정치적, 종교적 개혁을 실행하게 하는 참 예언자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예언자 역할은 왕권이나 제사장 기능과 분리된 선언적 기능으로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6. 사회 구조의 변화와 여성 의례의 역동성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여성 의례의 변화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빅터 터너의 의례 연구에서는 의례를 정적인 모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사회적 콘텍스트에 의해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사회적 세계는 존재하는 것(in being)이 아니라 되어

---

50 유키뵘, “페미니스트 여신의례: 몸과 환경의 전략적 재구성”, 『여/성이론』, 통권 제7호 (2002, 12), 52.

51 슈퇴클(J. Stökl)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 예언자의 제한과 축소가 이스라엘 사회의 가부장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일신 하나님 야웨가 남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Jonathan Stökl, “Ištar’s Women, YHWH’s Men? A Curious Gender-Bias in Neo-Assyrian and Biblical Prophecy”, *ZAW* 121(2009), 98-99.

지고 있는(in becoming) 것이기 때문이다.<sup>52</sup> 의례의 구성 요소인 상징들 또한 사회적 관계의 역동성 안에서 발생하며 그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터너가 이 사회적 관계를 이해할 때 나란히 존재하고 또한 서로 교체되기도 하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구조화, 차별화, 계급 체계적으로 구성된 정치적, 법적, 경제적 체계이고 두 번째는 비구조화되거나 부분적으로만 구조화된, 비차별적 또는 평등한 공동체이다. 터너는 이 두 번째 모델을 의례 반구조(anti-structure)로 규정하는데 이것은 사회 구조의 안티테제라는 것이다. 즉 의례는 사회 구조의 요구들을 연기하거나 느슨하게 하고 또는 가능한 대안적 사회 제도를 설립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례는 반구조에 존재하며 의례는 사회적 변화의 변증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sup>53</sup>

엔들의 신접한 여인의 초혼 의례는 이스라엘 왕국 초기 변화된 계급적 사회 구조와 권력에 반하는 반구조적 사회 관계 안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사울 왕은 신분을 숨긴 채 엔들의 이름없는 신접한 여인 앞에 나타났고 그녀가 행하는 의례 행위를 통해서 구조적 차별과 강제적 제한을 허물어 버리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신접한 여인은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금지된 종교행위를 의뢰하는 한 사람의 요청대로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한다. 이스라엘 왕국에서 금지된 점술을 행하는 엔들의 신접한 여인의 종교 의례는 최초의 공권력 가진 사울 왕과 지방의 이름없

52 안선희, *윳 글*, 255. 이것은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의 '장기지속적인 역사'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 즉, 역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오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구조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것이다. 김웅중, 「페르낭 브로델: 지중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파주: 살림, 2006), 37-40.

53 안선희, *윳 글*, 260.

는 여인의 만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만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왕국과 왕권이 추구하려했던 체계적이고 계급적이고 사회 구조와 공식적인 종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점술과 예언은 서로 독립되고 상반된 영역으로 여겨져 왔고 성서 본문 안에서도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예언과는 달리 점술은 이방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sup>54</sup> 그러나 고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하나님과 교류하며 그의 뜻을 발견하는 꿈, 환상, 제비뽑기 등의 신비주의적 방법들이 존재했다. 예언자들 또한 독특한 신비체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며(사 6장; 렘 1:4-10 등) 환상과 계시를 통해(암 7:1-9:4; 렘 1:11-13; 겔 1:1 등)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였다.<sup>55</sup>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점술과 같은 신비적 방법은 마술의 영역으로 제한되고 금지되었으며 공식적 예언자들의 예언 형태만이 종교의 영역으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의 뜻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언어적 예언의 범위로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의례는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구조에 따라 점차 주변화되고 금지되었으며 공식적인 종교의 영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국에서 엔들의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초혼 의례를 통해, 그리고 짐승을 잡아 종교 의례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먹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서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 초기 공동체에 존재했던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여성 의례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것은 왕권을 전제로 한 제

54 Esther J. Hamori, *위 글*, 827.

55 강성열, *위 글*, 23-36.

도적, 정치적 사회 구조에 반하는 것이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 안에 엄연히 존재했고 산 자와 죽은 자, 권력과 이름을 가진 남성 왕과 금지된 종교 의식으로 살아가는 이름없는 여성 영매 사이의 대화를 통해 경계를 넘나드는 특별한 의례를 통해 국가와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사회 구조의 변화는 종교 의례의 변화를 가져왔다. 비록 여성 주도적, 독립적 종교의례는 금지되고 축소되고 주변화되었지만 남 유다 왕국에서 정치적, 종교적 중앙화를 이루려는 마지막 시도였던 요시아의 종교개혁에서 홀다의 역할과 기능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 성전에서 발견된 문서인 율법책을 중심으로 국가와 왕의 운명에 대해 선언하는 종교의례를 주도하는 예언자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 예언자 홀다의 율법책에 대한 예언은 공적이고 국가적 종교의 범위 안에서 국가와 왕권의 존립과 유지를 가능하게 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왕국의 왕권과 성전, 그리고 율법책의 발견을 통해서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과정 중에서 종교적 예언 의례를 행하는 홀다의 기능과 역할은 기존의 남성중심적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구조적 사회 관계 모델 안에서 비차별적이고 평등한 선언이었던 것이다.

## 7. 나가는 말

엔들의 이름없는 ‘신접한 여인’의 초혼 의례와 요시아 종교개혁 시대 예언자 ‘홀다’의 예언 의례는 터너의 사회극 개념의 네 단계, 즉 위반, 위기, 교정, 대통합 또는 분리의 단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권력의 중앙집권화라는 사회 구조 변화와 함께 종교적 중앙집권화가 시도되는 상황에서 신접한 여인의 초혼 의례는 법적 금지를 위반하

www.kci.go.kr

고 개인적 생명은 물론 사회적, 국가적 질서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소통과 위로와 포용의 의미를 내포한다. 또 다른 정치적, 종교적 중앙집권화 시기에 홀다의 예언 의례 또한 남성 중심적인 사회 권력 구조 안에서 이름과 개인적 배경이 기록된 여예언자의 종교 의례가 가지는 의외성과 특별함을 드러낸다. ‘예언하는 여자들’(겔 13:17 이하)에 대한 성서의 일반적인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홀다의 ‘예언 의례’는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야웨 종교 안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여성 의례 자체는 점차 제한되고 축소되며 분리되어 나왔음을 또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질적인 종교와 문화의 갈등과 대립 안에서 중심부를 차지하는 공식적 종교와 주변화되는 이교적 종교행위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고대 사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행사한다는 결과는 정치와 사회, 종교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며 그것은 또 다른 문화와 연결되면서 결합되고 새로운 종교 전승들을 만들어내며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을 통해 표현된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여예언자의 종교행위는 신약성서에서 메시아에 대해 말하는 여예언자 안나(눅 2:36-38) 이야기에서 계속되며<sup>56</sup>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음악이나 미술작품을 통해 변용, 흡수되어 메시아와 시빌(sibyl) 또는 시빌라(sibylla)의 만남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sup>57</sup>

56 여예언자 안나가 종교적으로 신실하며 나이많은 과부라는 사실은 안나에게 권위를 부여하며 과부에 대한 기독교의 이상적 모습(딤후 5:3-16)을 드러낸다. 존 놀랜드, 김경진 옮김, 「누가복음 1:1-9:20」(서울: 솔로몬: 2003), 287. 원제는 John Nolland, *Like 1:1-9:20* (Dallas: Word Books, 1989). 제인 웨버그, “누가복음”, in: 캐롤 A. 뉴섬/샤론 H. 린지,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신약편」(이화여성신학연구소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26. 원제는 C.A. Newsome and S. H. Ringe (eds.), *Women's Bible commentar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57 고대에는 많은 무녀들이 살고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시빌은 고대 로마 건국에 관한 베

특히 18세기 후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진혼곡, 레퀴엠<sup>58</sup> 중 제2부 부속곡 제3곡 분노의 날(dies irae) 라틴어 가사 중에 teste David cum Sibylla(시빌라와 함께 하던 다윗의 증언에 따라)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그리스어 시빌라(Sibylla), 라틴어로는 시빌(Sibyl)은 무녀 혹은 여예언자, 여사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성서에서 그 직접적 내용을 찾을 수 없고 다윗과 무녀 혹은 여예언자와의 관계는 오히려 로마, 그리스 문화와 신앙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유연한 다신교적 로마 종교에는 많은 여신과 여사제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며<sup>59</sup> 특히 카이사르 아우구스 투스가 티부르의 무녀의 예언을 들었다는 왕과 무녀의 만남에 대한 신화는 중세에 이르러 무녀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자 성모자, 혹은 성모가 그 앞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로 변형되면서 많은 예술 작품의 주제가 되었다.<sup>60</sup> 나라의 건국이나 왕의 운명에 관한 여예언자의 예언은 고대 세계에서는 보편적인 것이었으며 후대 기독교 세계에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문서인 성서의 기록과 내용이 단지 고대 사회의 종교의 과정을 투사할 뿐만 아니라 시대와 역사 안에서 다양한 문

---

르길리우스(Publius Vergilius Maro)의 서사시 아이네이스(Aeneas) 제7권에 성문화된 쿠마에 무녀이다. 그녀는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아스를 도와 지하세계로부터 동행하며 장차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예언하였기 때문인데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정화, 라파엘로 산타마리아 델라 파체의 그림 등에도 등장하며 기독교 문화와 결합되었음을 보여준다. 베르켈리우스 원작, 아우구스테 레히너 풀어지움, 김은애 옮김, 「아이네이스」(서울: 문학과지성사, 2017), 310-355. 원제는 Vergilius, *Aeneas* by Auguste Lechner (Innsbruck-Vienna: Tyrolia-Verlag, 1961). 위 번역서에는 시빌라로 번역되어 있으며 예언자, 여사제, 무녀로도 지칭된다.

- 58 진혼곡은 죽은 이의 넋을 달래는 노래이고 레퀴엠(Requiem)은 라틴어로 '안식'을 의미한다.
- 59 Sarolta A. Takacs, *Vestal Virgins, Sibyls, and Matrons: Women in Roman Religio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8), 60-79, 123.
- 60 "Augustus and Tiburtine Sibyl", in: T. D. Jones, L. Murray, P. Murray(ed.), *The Oxford Dictionary of Christian Art and Architecture*(2.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화적 요소들과 결합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고 새로운 신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며 문화사적 연구<sup>61</sup>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유일하고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공식적이고 정통적인 종교 안에는 사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종교와 신앙의 형태를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종교적 배타성을 지양하고 다원주의적 가치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열, “고대 이스라엘의 신비주의와 이단”, 「신학논단」 제73집 (2013), 7-43.
- 강승일,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점술」 (서울: CLC, 2015).
- 김윤식, “역대하 34-35장(요시아 본문)에 나타난 개혁과 포용적 언어”, 「구약논단」 제27권 4호(2021.12), 46-83.
- 김응중, 「페르낭 브로델: 지중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파주: 살림, 2006).
- 서명수, “예언자 ‘홀다’와 카프카의 ‘회당의 동물’”, 「문학과 종교」 제14권 1호 (2009), 117-136.
- 엄태항, “역대기에서 홀다의 예언: 대하 34:22-28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23권 3호(2017.09), 75-109.
- 윤동녕, “제왕신탁가로서의 홀다의 역할과 기능”, 「구약논단」 제28권 3호 (2022.09), 186-216.
- 안선희, “빅터 터너(Victor Turner)의 의례이론의 예배 연구에의 적용: 사회극 이론과 예배 갱신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32집 (2004), 253-274.
- 유기쁨, “페미니스트 여신의례: 몸과 환경의 전략적 재구성”, 「여/성이론」, 통권 제7호 (2002, 12), 47-73.
- 이경숙, 「구약성서의 여성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이경숙 외 지음, 「여성이 읽는 성서 구약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61 문화사는 정치, 종교, 사회를 넘어서 철학, 문학과 예술 등 미학적인 분야로 확대되는 인간 활동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역사학으로서, ‘문화사의 과제는 문명의 실제적, 개별적 과정을 형태학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있다.’ 요한 호이징하, 「문화사의 과제」 (김원수 옮김), (서울: 아모르문디, 2006), 88.

- 이양호, 「철학. 윤리. 종교 강의」(서울: 이문출판사, 2000).
- 하미자, “구약에 나타난 여성 지도자 연구: 미리암, 드보라, 홀다에 관한 여성신학적 고찰”, 「한국여성신학」 64 (2004), 60-68.
- 라이너 알베르츠, 「이스라엘 종교사 I」(강성열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원제는 Alberts, Rainer,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 조셉 블레킨소프, 「이스라엘 예언사」(황승일 옮김),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2). 원제는 Joseph Blenkinsopp, *A History of Prophecy in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3, 1996).
- Budde, Phillip J. *Leviticus*, NCBC (Grand Rapids: Eardmans, 1996).
- Edelman, Diana, “Huldah the Prophet: of Yahweh or Asherah?”, in: Athalya Brenner(ed.), *A Feminist Companion to Samuel and King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 노만 K. 갓월드,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정치」(윤성덕 옮김), (서울:CLC, 2018). 원제는 Gottwald, Norman K., *The Politics of Ancient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Hamori, Esther J., “The Prophet and the Necromancer: Women’s Divination for Kings”, *JBL* 132, no 4 (2013), 827-843.
- 요한 호이징하, 「문화사의 과제」(김원수 옮김), (서울: 아모르문디, 2006). 원제는 Huizinga, Johan, *De taak der cultuurgeschiedenes* (Historische Uitgeverij: 1995).
- Jensen, David H., *1 & 2 Samu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5).
- Jones, Tom Devonshire/Murray, Linda./Murray, Peter(ed.), *The Oxford Dictionary of Christian Art and Architecture*(2.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랄프 W. 클레인, 「사무엘상」(김경열 옮김), (서울: 솔로몬, 2004), 원제는 Klein, Ralph W., *1Samuel* (Waco, Word Books, 1983).
- McCarter, Jr., P. Kyle, *1 Samuel*,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0).
- 캐롤 A. 뉴섬/샤론 H. 린지 엮음,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구약편」(이화여성신학연구소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원제는 Newsome, C. A., & Ringe, S. H., (eds.), *Women’s Bible commentary* (L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 캐롤 A. 뉴섬/샤론 H. 린지,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신약편」(이화여성신학연구소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원제는 Newsome, C. A., & Ringe, S. H., (eds.), *Women’s Bible commentary* (L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 존 놀랜드, 「누가복음 1:1-9:20」(김경진 옮김), (서울: 솔로몬: 2003). 원제는 John Nolland, *Like 1-9:20* (Dallas: Word Books, 1989).
- Noth, M., *Leviticus*, OTL (Göttingen: SCM Press, 1965).
- E. C. 리스트,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박봉배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원제는 Eric Charles Rust, *Judges, Ruth, Samuel 1&2* (London: SCM Press, 1962).
- Schottroff, Luise /Schroer, Silvia /Wacker, Marie-Theres, *Feministische Exegese-Forschungserträge zur Bibel aus der Perspektive von Frauen* (Darmstadt: Primus Verlag, 1997).
- Schottroff, Luise & Wacker, Marie Theres (Herg.), *Feministische Bibelauslegung*, 2. korrigierte Auflage, (Gütersloh: Chr. Kaiser Gütersloher Verlagshaus, 1998).
- Stökl, Jonathan, “Ištar’s Women, YHWH’s Men? A Curious Gender-Bias in Neo-Assyrian and Biblical Prophecy”, *ZAW* 121(2009), 87-100.
- Takcas, Sarolta A., *Vestal Virgins, Sibyls, and Matrons: Women in Roman Religio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8).
- Turner, Victor, *From Ritual to Theatre-The Human Seriousness of Play* (New York: PAG publications, 1982).
- \_\_\_\_\_, *The Drums of Affliction, A Study of religious process among the Ndembu of Zambia* (Oxford: Clarendon press, 1968).
- 빅터 터너, 「인간 사회와 상징 행위: 사회적 드라마, 구조, 커뮤니티스」(강대훈 옮김), (서울: 황소걸음, 2018). 원제는 Victor Turner, *Drama, Fields and Metaphors: Symbolic Action in Human Societ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 베르겔리우스 원작, 아우구스테 레히너 풀어지음, 「아이네이스」(김은애 옮김), (서울: 문학과학사, 2017). 원제는 Vergilius, *Aeneas* by Auguste Lechner (Innsbruck-Vienna: Tyrolia-Verlag, 1961).
- Würthwein, Ernst, *Die Bücher der Könige, 1.Kön.17-2. Kön.2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 Zenger, E.(u.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1995).

#### 검색어

엔돌의 신접한 여인, 사울, 사무엘, 요시야 왕, 예언자 홀다, 종교개혁

www.kci.go.kr

[ ABSTRACT ]

## The Medium in Endor and the Prophetess Huldah: Sociocultural Implications of Women's Religious Rituals

Eun-Ae Lee

Ewha womans university

Changes in the form of women's rituals regarding the fate of the country and the king, which can be found in the Old Testament, are closely linked to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and power system of ancient Israel. A medium in Endor (1Sam. 28:3-25), the most representative female spirituality, show the female-led religious sphere and rituals of early Israeli society. She summoned the soul of the dead Samuel to prophesy the fate of the king and the nation. She also presided over a religious ceremony that involved killing a beast and sharing it with the participants. These religious activities were prohibited in the centralization of the Yahweh religion along with the centralization of power attempted in the Saul's kingdom. However, there were still various ways to meet gods in the provinces and within the form of family religion, and there were spirit mediums that mediated the realm of gods, and it can be assumed that the role was mainly women. In the early days of the Israeli monarchy, a decentralized society in which charismatic religious leaders in various forms could operate was premised, so it would have been relatively more possible for women to engage in religious activities.

The prophecy of the prophet Huldah (2Kings 22; 2Chr. 34:22-28) as

www.kci.go.kr

a collaborator to the Yahweh religion's Reformation of the King Josiah of the kingdom of Judah was based on a document called the Book of Laws found in the Temple in Jerusalem and was significant in that it showed the legitimate religious practices and authority of a female prophet in the official Yahweh religion by predicting using the typical the messenger form of the prophet. Although the role of the prophet during this period was limited to a declarative function separate from the function of the king or priest, the prophecy of the prophet Huldah can be seen as having a social meaning that enabled the existence and maintenance of the state and the monarchy within the scope of public and national religion.

In the process of political and religious centralization, the religious practices of female mediums and prophets were gradually suppressed. They were relegated to a limited religious ritual, namely the word of prophecy

key words

A medium in Endor, Saul, Samuel, Josiah, Prophetess Huldah,  
Reform of religion

투고일: 2025년 08월 09일

심사일: 2025년 08월 20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9월 05일

www.kci.go.kr